

# 太初에 암흑, 그리고 무지개가 있었다



베니스=곽아람 기자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 김수자는 “어둠과 빛을 경험한 관객의 몸이 행위예술가(performer) 역할을 하도록 구상했다”고 말했다. 무지개와 거울, 어둠이 공존하는 한국관에서 작가 자신도 ‘작품’이 됐다.

## 한국관 대표 작가 김수자씨

태초(太初)의 어둠과 태초의 빛. 그 외엔 어떤 것도 ‘전시’ 돼 있지 않았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 김수자(56)는 창세기의 도입부처럼 전시를 구성했다.

우선 어둠. 전시장 모퉁이에 빛과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밀실(密室)이 설치됐고, 진행 요원 안내를 받아 입장한다. 꽁꽁 묶인 시각 대신 촉각이 곤두선다. 발아래에서 느껴지는 폭신한 카펫의 감촉. 공포스러웠던 어둠이 아늑하게 느껴질 때쯤 다시 문이 열린다.

이번엔 빛. 어둠에 익숙해졌던 눈에 수천, 수만 개의 무지개가 쏟아진다. 바닥, 천장, 벽면에 암흑에서 막벗어난 관객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

김수자는 원래 통유리였던 한국관 벽면에 반투명 필름을 감싸, 빛이 꺾이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필름에 달은 햇살은 무지갯빛으로 흘러진다. 햇살이 짱하게 좋은 날이면 한국관 전체가 찬란한 무지개에 휩싸인다. 바닥과 천장, 벽 일부엔 알루미늄 거울을 붙여 관객이 빛 속에서 여러 개의 자기 모습을 관찰하도록 했다. 간간이 숨소리도 들린다. 작가 자신의 숨소리를 녹음한 사운드 퍼포먼스 ‘더 위빙 팩토리(The Weaving Factory)’다.

전시장에서 만난 김수자는 “전시를 구상하는 동안 뉴욕에 허리케인 샌디가 들이닥쳐 단전(斷電)을 경험했다. 문명 이전의 어둠, 자궁 속의 어둠을 염두에 두고 암실을 만들었다.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에서 코소보 전쟁 난민들에게 헌정하는 보따리 트럭 작업을 선보였던 작가는 이번에는 한국관 자체를 빛과 어둠, 생명의 숨소리가 공존하는 ‘거대한 무지갯빛 보따리’로 재해석했다.

1995년 완공된 한국관은 공원 내 화장실을 개조한 것. 설계 구조를 변경하지 말고, 바다가 보이는 경관도 해치지 말라는 비엔날레 측의 요구 탓에 고육지책으로 ‘유리 전시장’ 형태를 택했다. 뉴욕과 파리를 오가며 활동하는 김수자는 “1999년 한국을 떠나면서 ‘망명작가’처럼 살았다. 이번 기회에 모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다”고 했다.

생명과 모성(母性)의 위무(慰撫)를 주제로 한 이 전시의 제목은 ‘호흡: 보따리(To Breathe: Bottari)’. 자니 로가(59)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 문화프로그램 담당관은 “40분 기다려 관람했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특히 고요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둠의 방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베니스=곽아람 기자